



미 증시, 인프라 투자 합의 소식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4 일(목) 미국 3 대 증시는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내구재주문 등 경제지표 부진에도, 뉴욕 연은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인 발언, 약 1 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0%, S&P500 +0.6%, 나스닥 +0.7%). 업종별로는 부동산(-0.5%), 유틸리티(-0.1%)를 제외한 금융(+1.2%), 에너지(+0.9%), 커뮤니케이션(+0.8%), 산업재(+0.8%) 등 전업종이 강세.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41.1 만건으로 전주(41.8 만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예상치(38.0 만건)는 상회. 5 월 내구재주문은 +2.3%(MoM)로 전월(-0.8%)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예상(+2.6%)보다는 부진. 1 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는 6.4%(연율)로 이전 잠정치(6.4%) 및 예상치(6.4%)에 부합했으며, 서비스 소비(4.6%→4.2%) 하향에도 개인소비지출(11.3%→11.4%) 상향이 이를 상쇄시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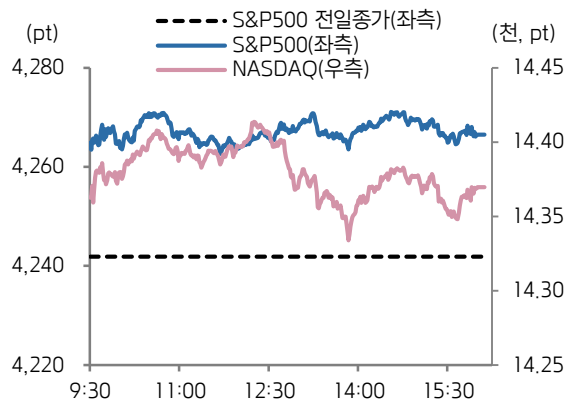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 이후 9,530 억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안에 합의했다고 발표. 이는 기존에 예정된 연방 예산안에 약 5,790 억달러가 추가된 금액으로, 해당 자원은 5 년 동안 물류, 항만, 대중교통, 친환경 관련 인프라시설에 투자될 계획.

미국 증시 평가

미국 인프라투자는 당초에 제시한 2.2 조달러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한 규모이며, 세부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필요한 상태. 사실 바이든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재료이지만, 5~6 월 중 정치권의 노이즈(해당 안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의견 갈등)로 인해 쌓였던 시장참여자들의 피로감을 해소시켜줬던 소식으로 볼 수 있음. 또 법인세 등 세금 인상을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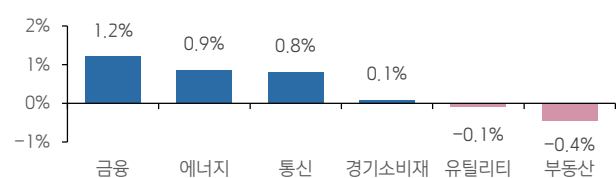
전일에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으나,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그 가운데, 뉴욕 연은 총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 중도파, 비둘기파 위원들이 스탠스 변화없이 완화적인 입장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연준 긴축 사이클 진입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줬던 것으로 판단.

S&P500 일종 차트(6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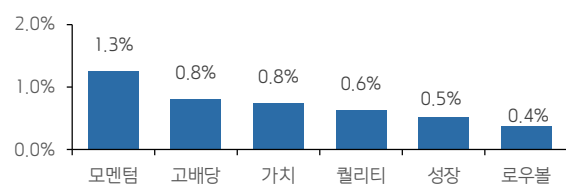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2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9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2.0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미국발 인프라투자 훈풍으로 인한 국내 소재, 산업재 주가 상승 여부 2. 매크로 환경 호전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귀환 가능성 3. 최근 주가 급등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간 순환매 지속 여부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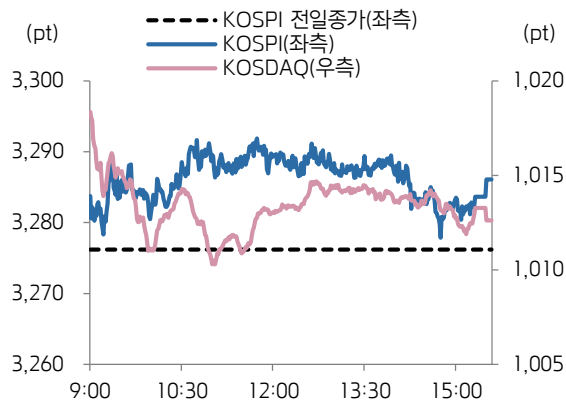
24 일(목) 코스피는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연준과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입장 표명, 카카오(-7.4%), 네이버(-1.0%) 등 성장주 및 중소형주 주가 조정에도, 업황 개선 기대감에서 기인한 반도체 등 IT, 철강 업종 강세에 힘입어 사상최고치(3,286.10pt)를 경신한 채로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4%)

업종별로는 철강금속(+3.0%), 은행(+1.4%), 전기전자(+1.4%) 등이 강세, 섬유 의복(-2.1%), 서비스(-2.0%), 기계(-1.5%) 등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049 억원, 447 억원, 기관이 1,357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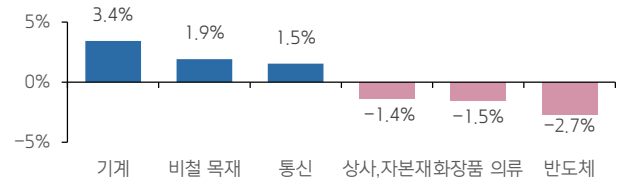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소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재부각 등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신고가 경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인프라투자 훈풍으로 미국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 반도체,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음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수급 주도하에 관련 업종들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 물론 빠른속도로 진행되는 순환매 장세에 대한 피로감,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최근 주가가 단기에 급등했던 개별 테마주, 중소형주들의 주가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 다만,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될 것임을 감안 시, 지수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압력으로 인한 증시의 방향성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6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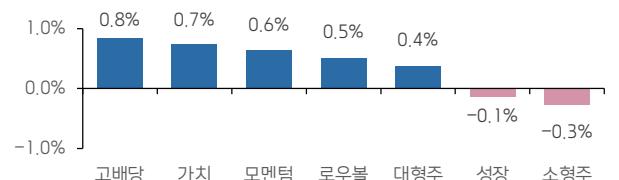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2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